

「이달의 엔지니어상」 3월 수상자 수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허영섭)는 「이달의 엔지니어상」 3월 수상자로 대기업부문에 LG-Caltex정유(주) 최혁보 팀장, 중소기업부문에 (주) 율텍정보통신 정성일 책임연구원을 선정했다. 대기업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최혁보 팀장은 제조 공장 생산시설물의 안전부문을 담당하면서 안전 환경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시켜 총 5만2,851개의 결함을 발견·개선하였고, 장치 배관 설비에 쓰이는 단열재의 내구성 저하로 인한 누수문제를 발수 성능 96% 이상의 보온단열재 개발을 통해 해결했다. 또한 고온·고압의 열교환기 129기의 Gasket 누출을 방지한 새로운 설계의 Gasket과 기존 Packing의 단점을 개선하여 개발한 VOC Packing을 도입하여 안전·환경·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산업안전에 기여했다.



중소기업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정성일 책임연구원은 통신 계측기의 핵심 개발기술인 DSP 처리 기술과 CDMA 단말기 및 기지국 모뎀 처리 기술 등 고난이도의 정밀기술을 요구하는 계측기 개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이동통신 계측기의 국산화를 이룩하였다. 또한, 자체 기술력으로 계측장비를 개발하면서 확보한 기술력은 국내 이동통신 계측기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CDMA 방식을 이용한 유·무선 무인 경보장치, IMT2000 Test Bed System 등을 개발하여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이달의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에서 기술혁신을 통하여 국

가경쟁력 및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엔지니어를 발굴, 포상하여 산업기술 인력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현장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2년 7월부터 시상해오고 있으며,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엔지니어 각 1인을 선정, 과학기술부장관상과 포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3월 10일(월) 오전 11시 30분 노보텔 알사스프로방스룸에서 개최되었다.

문의 : 산기협 심사평가팀 (2185-8823)

올해 산업기술개발에 5,446억원 지원

기업, 대학, 연구소의 공동핵심기술개발, 신기술 실용화개발, 중기거점기술개발, 차세대신기술개발, 핵심기반기술개발 사업 등 산업기술 개발에 총 5,446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는 4월부터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에서 정한 접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를 참조하면 된다.

과기부, 2007년까지 1,200억원 투입 '나노특화Fab.센터' 구축·운영키로

과학기술부는 2003년 3월 7일 미래 신산업 창출의 핵심기술인 나노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인프라로서 지난해 나노종합Fab센터 구축에 이어 화합물 반도체 중심의 비실리콘계 나노소자 분야에 대한 '나노특화Fab.센터'를 구축·운영키로 하고 이 사업의 유치기관을 공모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에 걸친 기획을 통하여 특화Fab 설치에 위한 특화기술분야 도출 및 사업추진 계획안을 마련하고 20여일간의 행정예고와 설명회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화합물반도체 중심의 비실리콘계 "나노소자특화Fab센터"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2007년까지 5년간 총 1,200억원(민간 700억원 포함)을 투자하여 화합물 중심의 비실리콘계 나노소자분야의 '나노특화Fab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1단

계로 2005년까지 885억원을 투자하여 약 800평 규모의 Fab.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나노특화Fab.센터'는 특화기술 분야에 대하여 산·학·연에 나노기술 연구장비 이용서비스 제공, 나노기술전문인력 양성, 나노 벤처창업 및 나노기술이전 서비스 제공, 나노기술관련 국내외 협력기반 구축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Fab.센터를 범국가적 공용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주관기관으로부터 조직, 인사, 회계 등을 분리 운영하고(독립성 확보), 둘째, 산·학·연 연구주체가 Fab.센터를 항상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운영하며(공개성 유지), 셋째,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운영체제를 유지(투명성 지향)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3월 중순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서류평가, 발표·패널평가, 현장평가 등 다단계 평가 과정을 거쳐 후보기관을 선정하고 5월중에 '나노기술개발추진위원회'의 검토, 심의를 받아 사업유치기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나노특화Fab.센터'가 구축 운영되게 되면 '나노종합Fab.센터'와 함께 국내 나노기술 연구개발 핵심 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특히, 나노기술의 아이디어 발전에서 산업화까지 기술개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고,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투자의 경제성 제고는 물론 소규모 투자로 나노기술의 제품화를 유도할 수 있어 벤처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기술연구원, '함께때' 수상

태평로 모임 함께!

일시 : 2003년 3월 19일 장소 : 프레스센터



이승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은 3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분을 지키는 태평로 모임」이 수여하는 '함께때'를 수상하였다.

이 날 수상식에는 국내의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일본의 가토 미쓰오씨를 비롯한 역대 '함께때' 수상자가 참석하였다. '함께때'는 "당신과 함께합니다"라는 의미로 묵묵히 원칙을 지켜 최선을 다하면서, 의류지만 의로운 길을 걸어온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청소년 3만8,000여명에 무료 SW교육

정보통신교육원(원장 이경근)에서는 올해 73억원(정부 51억·지자체 22억)을 들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정보화 관련 교육을 제 때 받지 못하는 청소년 3만8,000여 명에게 무료 소프트웨어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교육청·체신청 등과 손잡고 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전국 16개 교육장에서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 3만8,220명에게 컴퓨터 실무과정 등 기반 분야와 웹·프로그래밍 분야 10개 과정을 가르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료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경진대회를 열어 실력을 점검케 하고, IT 관련 자격증도 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99년부터 시작한 소프트웨어 기술 교육은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부설 정보통신교육원이 맡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말까지 모두 5만3,00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문의: 정보통신교육원 02-550-4390

'세계 뇌주간' 국제뇌과학심포지엄 개최

세계 뇌 주간을 기념하여 3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제뇌과학심포지엄(2003 International Brain Science Symposium)이 국내외 과학, 교육계 인사들과 일반인 등 총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위한 뇌과학과 그 활용'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미국에서는 뇌신경 과학자가 중심이 되어 1992년부터 매년 3월 셋째주를 '뇌주간'으로 정해 공개 강연, 토론, 병원·연구소 개방, 학교 방문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1997년부터 '뇌주간' 행사를 갖고 있다.



또 2000년에는 국제 뇌연구기구 및 유네스코 후원으로 아시아·남미·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도 참가해 '세계 뇌주간'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전세계 41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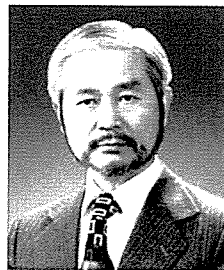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인터넷 공개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현)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정용 냉장고, PDP TV, LCD 모니터, CRT용 유리, 두루마리화장지 등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의 환경성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환경성적표지인증 전용 웹사이트(<http://www.edp.or.kr>)」를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환경성적표지인증(EDP)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하여 원료채취, 제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을 평가하고 이를 인증기관(환경관리공단)의 정밀검토를 거쳐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인 핀란드의 노키아사가 부품 공급업체들에게 제품의 환경성정보(LCI D/B)를 요구함에 따라 국내 관련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본 소니사의 경우에도 「그린파트너십」을 통하여 자사제품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환경성정보(LCI D/B)를 구축하는 등 제품의 환경성적에 국제무역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제품의 환경성이 국제무역의 주요 변수로 대두됨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도 국제규격 제정을 위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규격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비관세 무역장벽화 될 전망이다. 환경성적표지인증 획득은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아래서 환경성적표지인증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들에 대한 환경성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의 활성화와 녹색소비의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환경성적표지인증 받은 20여개 제품의 환경성 정보가 환경성적표지인증 웹사이트에서 모두 공개되고 있으며 이밖에 환경성적표지제도에 대한 소개, 인증기준, 인증컨설팅, 인증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제8회 국제대기환경학술회의 성료



제8회국제대기환경학술회의가 3월 11일 일본 과학도시 쓰꾸바(Tsukuba) 국제학술회의장에서 세계 30여국의 대기환경 전문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가운데 열렸다.

이 학술행사는 세계의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활동은 물론 연구자료와 인력교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여러 나라의 대기환경 교수 및 전문가들이 모여 1983년 창립됐다. 1985년 서울에서 제1회 학술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격년으로 개최 국기를 변경하며 개최하고 있다.

이날 학술행사에선 정용승 한국교원대 교수가 국제대기환경학술회의를 창립하고 20년간 학술행사를 활성화시킨 공로로 행사주최측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한국의 과학자들이 국제적인 학술회의를 창립하여 선도하고 있는 국제적인 학술행사로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일이다.